

page. 11_제목찾기

[정답] ①

[해석]

무려 32,000년 전 선사 시대 동굴 예술가들은 말과 들소에게 입체감을 주기 위해 능숙하게 모델링 그림자를 사용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와 그 후 고대 그리스 미술은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인간의 형태를 표현했다. 그러나 드리워진 그림자(cast shadows)는 기원전 약 400년 아테네 이전에는 서양 미술에 나타나지 않는다. 고전 작가들이 예술 자체가 인간 그림자를 그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림자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표현의 확립된 일부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러했다. 그리스인들은 모델링 그림자에서 드리워진 그림자로 전환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는 일관된 광원, 고정된 시점, 그리고 기하학적 투영에 대한 이해를 암시하는 관행이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다양한 예술적 표현에서의 그림자 탐구—은 고대 아테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이후로,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에 참여함에 따라, 그림자를 묘사하는 관행은 그것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발전해왔다.

[해설]

이 글은 예술 작품에서 '그림자(shadows)'가 선사 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대 이집트, 그리스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식되고 표현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의미에 관한 글이다.

글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글의 시작 부분에서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prehistoric cave artists skillfully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라는 문장에서는 선사 시대 동굴 예술가들이 그림자를 사용했음이 언급된다. 이어서 "A few thousand years ago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style silhouette."라는 문장에서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예술에서의 그림자 사용이 제시된다. 또한, "But cast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E in Athens."와 "Greeks...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s..."라는 문장은 서양 예술과 특히 고대 아테네에서 그림자 표현의 중요한 발전 단계를 설명한다. "In fact,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has its roots in ancient Athens."라는 문장과 "Ever since,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has evolved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about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이라는 문장에서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그림자 연구가 비판적 분석과 함께 계속 진화해왔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 문장들은 글이 선사 시대 동굴 예술에서부터 고대 이집트, 그리스(특히 아테네)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그 '여정(journey)' 또는 역사적 변천 과정을 추적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예술에서 그림자 표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선지에서 찾으면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① '선사 시대 동굴에서부터 시작된 예술 속 그림자의 여정'(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from Prehistoric Caves Onward)이다.

[오답 분석]

② 예술적 관점에서 본 인간 그림자의 묘사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글은 동물 그림자(말, 들소)도 언급하며, 인간 그림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묘사'가 아니라 역사적 발전과 의미를 다룬다. 적절하지 않다.

③ 현대 미술의 핵심 부분으로서 그림자 표현하기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Part of Contemporary Art): 글은 광범위한 역사적 흐름을 다루며, '현대 미술'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그림자가 현대 미술의 '핵심 부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④ 그림자 화가들을 위한 주된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s?): 그림자 표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논의이지,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들이 겪는 기술적 또는 예술적 '도전 과제'를 주로 다루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⑤ 독특한 그림자 관점: 동굴 예술가에서 로마인까지 (Unique Views on Shadows: From Cave Artists to Romans): 글은 '로마인(Romans)'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으며(본문에는 그리스인들이 드리워진 그림자로의 전환을 이룬 첫 번째 사람들이라고 언급됨), '독특한 관점'보다는 그림자 표현 방식의 '발전 과정과 그 의미'에 더 중점을 둔다. 적절하지 않다.

[어휘]

shadow: 그림자

representation: 표현, 묘사

prehistoric: 선사 시대의

onward: (특정 시간부터) 계속

modeling shadow: 모델링 그림자 (입체감을 주기 위해 사물의 형태를 따라 그려진 그림자)

cast shadow: 드리워진 그림자 (물체가 빛을 가려 생기는 그림자)

silhouette: 실루엣, 윤곽

volume: 부피, 입체감

established: 확립된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trace: (윤곽을) 그리다; 추적하다

transition: 전환, 이행

consistent light source: 일관된 광원

fixed point of view: 고정된 시점

geometric projection: 기하학적 투영

artistic: 예술적인

portray: 묘사하다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

critical analysis: 비판적 분석

significance: 중요성, 의미

page.12_주제찾기

[정답] ④

[해석]

일식과 같은 비범한 현상에 놀라는 것이 낙하하는 물체나 밤이 낮으로, 낮이 밤으로 바뀌는 연속과 같은 평범한 현상에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 많은 문화가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거나,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한 이 일식들을 설명하기 위해 신들을 만들어냈지만,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신을 상상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식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밤낮의 연속의 원인과 동일하다: 즉, 천체의 움직임인데, 이것 자체는 뉴턴의 인력 법칙과 그것이 우리가 물체를 놓았을 때 왜 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에 기반한다. 물리학자에게 있어, 평범하고, 습관적이며, 빈번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두렵고 특이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왜 물건은 떨어지는가?"라고 묻고 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훨씬 더 이상한 현상들의 광범위한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뉴턴의 답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해설]

이 글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특이하고 놀라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즉 평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 비범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글이다.

글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글의 초반부에서는 "It is much more natural to be surprised by unusual phenomena like eclipses than ordinary phenomena like falling bodies..." 라는 문장을 통해 사람들이 일식과 같은 비범한 현상에는 놀라지만 낙하하는 물체와 같은 평범한 현상에는 익숙하다고 언급된다. 그러나 "But the reason for eclipses is ultimately the same as that of the succession of night and day: the movement of celestial bodies, which itself is based on the Newtonian law of attraction and how it explains why things fall when we let them go." 라는 문장에서는 비범한 현상(일식)의 원리가 평범한 현상(밤낮의 연속, 물체의 낙하)을 설명하는 뉴턴의 법칙에 기반한다고 제시된다. 핵심적으로, "For the physicist, understanding the ordinary, the habitual, and the frequent thus allows us to account for the frightening and the singular." 라는 문장에서는 물리학자에게 있어 '평범하고, 습관적이며, 빈번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두렵고 특이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된다. 마지막으로 "As such, it was thus necessary to ask "Why do things fall?" and to have Newton's response to understand a broad range of much more bizarre phenomena..." 라는 문장에서는 "왜 물건은 떨어지는가?"(평범한 것에 대한 질문)를 묻고 뉴턴의 답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necessary)'고 강조한다.

이 문장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상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겉보기에 특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비범한 현상들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비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범한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비범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선지에서 찾으면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④ '비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평범한 것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필요성'(need to pose questions about the

usual to understand the unusual)이다.

[오답 분석]

① 과학적 설명보다 신화적 설명을 널리 선호함 (widespread preference for mythical explanations over scientific ones): 글은 과거에 신화적 설명(예: 일식에 대한 신)이 있었음을 언급하지만, 궁극적으로 과학적 설명(뉴턴의 법칙)이 평범함과 비범함 모두를 이해하는 열쇠임을 강조하므로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일식 현상 설명에 있어 뉴턴 법칙의 한계 (limitations of Newtonian law in explaining eclipse phenomena): 글은 뉴턴 법칙이 일식 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된다'고 말하므로, 그 '한계'를 지적하는 이 선지는 내용과 반대된다. 적절하지 않다.

③ 과학적 해석이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cientific interpretations on perceptions of reality): 과학적 해석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글의 핵심은 '평범한 것의 이해를 통해 비범한 것을 이해한다'는 구체적인 과학적 접근 방식과 그 필요성이므로, 이 선지는 너무 일반적이다. 적절하지 않다.

⑤ 비범한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의 어려움 (difficulty of drawing general conclusions from unusual phenomena): 글은 비범한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범한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

[어휘]

phenomenon: 현상 (복수형: phenomena)

ordinary: 평범한, 일상적인

unusual / singular / bizarre: 비범한 / 특이한 / 이상한, 기이한

eclipse: 일식, 월식

celestial body: 천체

Newtonian law: 뉴턴의 법칙

attraction: 인력, 끌림 (여기서는 a law of attraction)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succession: 연속, 계승 (밤낮의 연속)

invent: (이야기·신 등을) 만들어내다, 발명하다

accustomed to: ~에 익숙한

notice: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physicist: 물리학자

habitual: 습관적인

frequent: 빈번한

frightening: 두려운, 무서운

mythical: 신화적인

interpretation: 해석

pose a question: 질문을 제기하다

page.13_빈칸문제

[정답] ③

[해석]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거의 새로운 소식이 아니지만, 루소에게 이 의존성은 동료애나 심지어 사랑을 훨씬 넘어 인간이 되어가는 바로 그 과정까지 확장되었다. 루소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며, 모든 개인은 잠재력의 묶음이고 그 실현은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자기계발은 사회적 과정이다. 자급자족은 불가능한 환상이다. 많은 경우 루소는 그렇지 않기를 열정적으로 바랐다: '로빈슨 크루소'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고, 그는 사회생활의 고통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그의 저술은 비범한 명료함으로 ① 인간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기록한다.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고 집단적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전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흄과 스미스가 정의한 "동정(sympathy)"에 훨씬 더 가깝지만 루소가 '연민(pitié)'이라는 항목 하에 분석한 바로 그 친절함(kindness)이 이 집단적 존재의 핵심이다.

[해설]

이 글은 루소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및 감정적 유대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다워지며, 완전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고 집단적 존재로서 '친절함(kindness)' 또는 '동정(sympathy)'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 관한 글이다.

빈칸에 들어갈 정보는 루소의 저술이 비범한 명료함으로 무엇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글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루소가 "people are not born but made, every individual a bundle of potentials whose realization requires the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라고 믿었다는 문장에서는 인간이 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잠재력을 실현하며 '만들어지는(made)' 존재라고 언급된다. 또한 "Self-development is a social process." 라는 문장에서는 자기계발이 사회적 과정임을 명시한다. 빈칸 바로 뒤에는 루소의 저술에서 인용된 "Our sweetest existence is relative and collective, and our true self is not entirely within us."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의 존재가 관계적이고 집단적이며 진정한 자아는 우리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어서 "And it is kindness – which Rousseau analyzed under the rubric of pitié, which translates as “pity” but is much closer to “sympathy” as Hume and Smith defined it – that is the key to this collective existence." 라는 문장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존재의 핵심이 '친절함(kindness)' 또는 '연민/동정(pitié/sympathy)'과 같은 감정적 연결 고리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장들은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적 유대(애착)를 통해 자아가 형성되고 발전하며, 이것이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측면임을 시사한다. 루소는 사회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급자족적인 삶을 갈망하기도 했지만("he yearned to be free from the pains and uncertainties of social life"), 그의 저술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상호 의존성과 감정적 연결을 통한 자아 형성의 중요성을 명료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루소의 저술이 명료하게 기록하는 것은 인간이 타인과의 감정적 애착을 통해 어떻게 개인으로서 형성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이다.] 이를 선지에서 찾으면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③ '그의 감정적 애착에 의한 개인의 형성'(the shaping of the individual by his emotional

attachments)이다.

[오답 분석]

① 인간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연구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philosophical study to understand human nature): 루소의 글 자체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지만, 빈칸은 그의 저술이 '기록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이 선지는 너무 포괄적이다. 적절하지 않다.

② 문학 작품을 통한 자급자족의 발달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through literary works): 본문은 자급자족을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명시하며, 문학 작품(로빈슨 크루소)은 루소의 개인적인 바람을 반영할 뿐, 자급자족 발달 방법을 그의 저술이 기록한다고 보기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

④ 그의 투쟁을 통한 자립적인 인간의 형성 (the making of the self-reliant man through his struggles): 본문은 자립(self-sufficiency)을 불가능한 환상으로 보며, 루소의 글이 자립적 인간 형성을 기록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적절하지 않다.

⑤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의 어려움 (the difficulty of trusting other people wholeheartedly): 타인에 대한 신뢰의 어려움이 이 글의 핵심 주제나 루소 저술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다.

[어휘]

dependence: 의존(성)

self-sufficiency: 자급자족

collective: 집단적인, 공동의

rubric: 항목, 규정 (여기서는 분석의 틀)

pitié: (프랑스어) 연민, 동정

sympathy: 동정, 공감

realization: 실현

involvement: 참여, 관여

fantasy: 환상, 공상

yearn: 갈망하다, 동경하다

uncertainty: 불확실성

document: 기록하다; 문서

clarity: 명료함, 명확성

sweetest: 가장 달콤한, 가장 즐거운

existence: 존재

relative: 상대적인

entirely: 전적으로, 완전히

kindness: 친절함

analyze: 분석하다

translate: 번역되다, 해석되다

page. 14 (좌)_제목찾기

[정답] ①

[해석]

웹 이전에, 신문 기록 보관소는 주로 전문 연구자들과 저널리즘 학생들의 케케묵은 영역이었다. 저널리즘은 본질적으로 시사적인 것이었다. 기록 보관소의 일반적인 접근성은 저널리즘의 유통 기한을 크게 연장시켰고, 오래된 기사들은 이제 더 최근의 기사들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용된다. 뉴스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관련하여,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이 이전에는 인쇄 매체 소비자들에게는 명백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았던 뉴스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맥락에 관여하려는 준비 태세로 이해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깊이에 의해 결정되는 온라인 뉴스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는, 뉴스 기사를 단명하고 연결되지 않은 구경거리라기보다는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의 분명한 결과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해설]

이 글은 웹의 등장으로 인해 신문 기록 보관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저널리즘의 유통 기한이 길어지고 뉴스 소비자들이 과거 기사를 통해 현재 뉴스의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는 뉴스를 단편적인 사건이 아닌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의 결과로 보는 시각을 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에 관한 글이다.

글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첫 문장에서 웹 이전에는 신문 기록 보관소가 특정 집단의 영역이었다고 언급한 후,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s has greatly extended the shelf life of journalism, with older stories now regularly cited to provide context for more current ones." 라는 문장에서는 기록 보관소의 일반적인 접근성이 저널리즘의 '유통 기한을 크게 연장시켰다(greatly extended the shelf life)'고 제시되며, 과거 기사들이 현재 기사의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to provide context)' 인용된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With regard to how meaning is made of complex issues encountered in the news, this departure can be understood as a readiness by online news consumers to engage with the underlying issues and contexts of the news that was not apparent in, or even possible for, print consumers." 라는 문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이 뉴스의 근본적인 문제와 '맥락(underlying issues and contexts)'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된다. 또한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seems to be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news stories as the manifest outcomes of large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rather than short-lived and unconnected media spectacles." 라는 문장에서는 온라인 뉴스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가 뉴스 기사를 단편적 사건이 아닌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의 '분명한 결과물(manifest outcomes)'로 이해할 가능성이라고 제시된다.

이 문장들은 웹 기반 저널리즘이 과거의 기록을 현재와 연결하고,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심층적인 맥락과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저널리즘의 지속성을 높이고 이해의 폭을 넓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웹 기반 저널리즘이 과거의 정보를 활용하여 더 오래 지속되고 맥락적으로 더 넓은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선지에서 찾으려면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① '웹 기반 저널리즘: 더 오래 지속되고 맥락적으로 더 넓어짐

'(Web-based Journalism: Lasting Longer and Contextually Wider)이다.

[오답 분석]

② 최신 콘텐츠로, 온라인 뉴스가 일간 신문을 이긴다! (With the Latest Content, Online News Beats Daily Newspapers!): 글은 온라인 뉴스가 과거 기록을 활용하여 맥락을 제공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단순히 '최신 콘텐츠'로 일간 신문을 이긴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적절하지 않다.

③ 온라인 미디어 저널리스트들이 뉴스 이면의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는 방법 (How Online Media Journalists Reveal Hidden Stories Behind News): 온라인 뉴스가 더 큰 문제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널리스트들이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글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

④ 인쇄된 신문으로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하자 (Let's Begin a Journey to the Past with Printed Newspapers!): 글은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과거 기사가 활용되는 것을 설명하므로, '인쇄된 신문으로 과거 여행을 시작하자'는 내용은 중심 내용과 맞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⑤ 웹 세계에서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 (Present and Future of Journalism in the Web World): 글은 웹으로 인해 저널리즘이 과거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로 다루며,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

[어휘]

archive: 기록 보관소, 공문서; 기록을 보관하다

shelf life: (상품의) 유통 기한, 저장 수명 (여기서는 저널리즘의 영향력 지속 기간)

context: 맥락, 배경

underlying: 근본적인, 기초를 이루는

emergent: 신흥의, 새로 생겨나는

manifest: 분명한, 명백한; (감정·생각 등을) 나타내다

spectacle: 구경거리, 장관

web: 웹, 인터넷

musty: 케케묵은, 곰팡내 나는

domain: 영역, 분야

professional: 전문적인; 전문가

researcher: 연구자

journalism: 저널리즘, 언론 활동

by definition: 본질적으로, 정의상

current: 현재의, 시사적인

accessibility: 접근성

extend: 연장하다, 확장하다

regularly: 정기적으로

cite: 인용하다

encounter: 마주치다, 접하다

소스

page. 14 (우)_빈칸문제

[정답] ⑤

[해석]

사진술 이전에는,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잘 전달되지 않았다). 화가들은 항상 특정 장소들을 그들의 '거처'에서 꺼내어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그림은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반하기 비교적 어려우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다. 사진의 복제는 특히 1880년대 하프톤 판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문, 정기간행물, 책, 광고에서 사진의 기계적 복제를 가능하게 했다. 사진술은 소비 자본주의와 결합되었고, 세계는 이제 이전에 전혀 활용되지 않았거나 단지 한 명의 고객을 위한 그림으로만 활용되었던 인물, 형상, 풍경, 사건들을 '무한한 양으로' 제공받았다. 자본주의가 세상을 '백화점'으로 배열함에 따라, 표현물의 확산과 유통은 ... 극적이고 거의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규모를 달성했다. 점차 사진은 세상을 가시적이고, 미적이며, 바람직하게 만든 대량 생산된 물건이 되었다. 경험은 그것들을 저렴한 이미지로 번역함으로써 '민주화'되었다. 가볍고, 작으며 대량 생산된 사진은 장소의 시공간적 유통을 위한 역동적인 수단이 되었다.

[해설]

이 글은 사진술의 발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며, 사진술이 장소와 경험의 재현 및 유통 방식에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에 관한 글이다.

빈칸에 들어갈 정보는 사진술 발명 이전 시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뒤이어 나오는 내용(화가들이 장소를 옮기려 했으나 그림의 제작, 운반, 유일성 때문에 한계가 있었음)과 대조를 이루거나 그 배경이 되어야 한다.

본문은 사진술 이전 시대에 대해 "While painters have always lifted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and transported them elsewhere, paintings were time-consuming to produce, relatively difficult to transport and one-of-a-kind." 라고 언급한다. [이 문장에서는 화가들이 특정 장소를 그림으로 재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transported)' 했지만, 그림 자체의 제작 시간, 운반의 어려움,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one-of-a-kind)' 특성 때문에 그 '이동'이나 '유통'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즉, 그림을 통해 장소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널리, 쉽게 공유하는 데 큰 한계가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진술은 "mechanical reproduction(기계적 복제)"을 가능하게 하여 "in limitless quantities(무한한 양으로)" 다양한 형상, 풍경, 사건들을 제공했고, 궁극적으로 "spatiotemporal circulation of places(장소의 시공간적 유통)"을 위한 "dynamic vehicles(역동적인 수단)"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진술 이후의 '역동적인 유통'과 '무한한 복제'와 대조되는 사진술 이전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장소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잘 이동하거나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진술 이전에는 장소에 대한 정보나 시각적 재현물이 널리 그리고 쉽게 유통되거나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선지에서 찾으면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⑤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잘 전달되지 않았다)'(places did not travel well)이다. "travel well"은 (상품 등이) 운반되거나 유통되기에 적합하다, 또는 (정보 등이) 잘 전달된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그림만이 자연과 연결되었다 (paintings alone connected with nature): 본문은 그림이 장소를 재현하는 수단이었음을 말하지만, 그것만이 자연과 연결된 유일한 것이었다거나 자연

과의 연결 자체가 핵심 논점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

② 그림이 주요한 예술 형태였다 (painting was the major form of art): 그림이 언급되지만, 그것이 '주요한' 예술 형태였는지는 이 글의 초점이 아니며, 사진술과의 비교는 '유통'과 '복제'의 측면이다. 적절하지 않다.

③ 예술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다 (art held up a mirror to the world): 예술이 세상을 반영한다는 일반적인 진술일 수 있으나, 빈칸은 사진술 이전의 '장소 재현 및 유통의 한계'라는 구체적인 맥락에 부합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다.

④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았다 (desire for travel was not strong): 본문은 장소를 재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지, 여행에 대한 '욕구' 자체가 약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화가들이 장소를 옮기려 했다는 점은 오히려 그러한 욕구가 있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적절하지 않다.

[어휘]

photography: 사진술, 사진

reproduction: 복제, 재현 (mechanical reproduction - 기계적 복제)

circulation: 유통, 순환

transport: 운반하다, 수송하다; 운반, 수송

one-of-a-kind: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 독특한 것

time-consuming: 시간이 많이 걸리는

half-tone plate: 하프톤 판 (인쇄용 판)

consumer capitalism: 소비 자본주의

limitless quantity: 무한한 양

utilize: 활용하다, 이용하다

proliferation: 확산, 급증

representation: 표현(물), 재현(물)

spectacular: 극적인, 장관의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global magnitude: 세계적인 규모

mass-produced: 대량 생산된

aesthetic: 미적인

desirable: 바람직한, 갖고 싶은

democratize: 민주화하다

spatiotemporal: 시공간적인

page.16_어휘문제

[정답] ④

[해석]

장소의 가치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1700년대까지 섬유 생산은 특정 지리적 ①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섬유, 예를 들어 면, 양모, 실크, 아마 등을 사용하는 수작업 공정이었다. 지역 간의 무역은 이러한 섬유와 그 섬유로 만들어진 관련 직물의 가용성을 ② 증가시켰다. 제1차 산업 혁명과 이후 제조 섬유 분야의 기술 발전은 섬유와 직물이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③ 더했다. 패션 회사들은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직물과 직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것은 소비자와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사이의 단절감,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상실, 그리고 제품 생성에 필요한 인간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련된 경시를 ④ 막았다(→ 야기했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회사와 소비자를 특정 장소의 사람, 지리, 그리고 문화와 ⑤ 다시 연결한다.

[해설]

이 글은 과거 섬유 생산이 특정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나 산업 혁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산지와 소비자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점(단절감, 기술/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인적/자연 자원 경시)과, 장소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지문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정답 선지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문장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 산업 혁명과 기술 발전으로 섬유와 직물이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no longer "place-bound")' 되었고, 그 결과 패션 회사와 소비자는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where, how, or by whom the products were made)"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었다고 언급된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한 결과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되는데, "This ④countered a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on a daily basis, a los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in the skills and resources necessary to create these products, and an associated disregard for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products' creation." 이라고 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This'는 앞 문장에서 설명된 '생산지와 소비자의 단절' 상황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산지와 단절 상황이 소비자들과 제품 사이의 '단절감(a disconnect)', 기술과 자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상실(a los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그리고 자원에 대한 '경시(disregard)'를 '막았다(countered)' 또는 '반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매우 어색하며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오히려 이러한 생산지와 단절은 언급된 부정적인 결과들, 즉 소비자들과 제품 사이의 단절감을 '야기하거나(caused/created/fostered/led to)' 심화시켰다고 해야 자연스럽다.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절한 어휘와 함께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④ 'countered'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으며 'caused', 'created', 'fostered', 'led to' 와 같은 어휘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particular: 초기 섬유 생산이 '특정한(particular)' 지리적 지역 내 자원을 사용했다는 설명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 ② increased: 지역 간 무역이 섬유와 직물의 가용성을 '증가시켰다(increased)'는 것은 일반적인 무역의 효과이므로 적절하다.
- ③ added to: 산업 혁명과 기술 발전이 섬유와 직물이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했다(added to)', 즉 그러한 경향을 심화시켰다는 의미로 적절하다.
- ⑤ reconnects: 장소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회사와 소비자를 특정 장소의 사람, 지리, 문화와 '다시 연결한다(reconnects)'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단절(disconnect)'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므로 적절하다.

[어휘]

disconnect: 단절(시키다), 단절(감)

place-bound: 장소에 얽매인, 특정 장소에 국한된

counter: 반박하다, 대응하다, 막다 (여기서는 문맥상 오류)

disregard: 경시(하다), 무시(하다)

reconnect: 다시 연결하다

textile production: 섬유 생산

geographic region: 지리적 지역

Industrial Revolution: 산업 혁명

technological advancement: 기술 발전

manufactured fiber: 인조 섬유

fashion company: 패션 회사

consumer: 소비자

acquire: 얻다, 획득하다

connection: 연결(고리)

appreciation: (진정한) 이해, 가치 인정, 감사

skill: 기술

resource: 자원

human resource: 인적 자원

natural resource: 천연자원

renew: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page. 18_빈칸

[정답] ③

[해석]

디지털 보존이 의미하는 바를 확립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질문은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가이다. 이것은 정보 내용이 물리적 매체에 불가분하게 고정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명확하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가 ③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다. 비트 스트림은 그것이 읽히는 매체에 관계없이 컴퓨터에게 동일하게 보인다. 물리적 운반체는 필요하지만, 원본 매체를 읽을 수 있는 한, 비트 단위로 완벽한 복사본을 다른 장치에서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 원본 운반체의 보존은 중요성이 줄어든다. 디지털 정보를 운반하는 물리적 매체는 대부분의 아날로그 매체에 비해 상당히 섬세하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는 진행 중인 보존 과정의 일부로서 한 물리적 운반체에서 다른 운반체로 이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존되어야 할 것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매체에 담긴 정보이다.

[해설]

이 글은 디지털 보존의 핵심 대상이 물리적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 또는 '메시지'임을 강조하며,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존 개념 차이를 설명하는 글이다.

빈칸에 들어갈 정보는 디지털 환경에서 물리적 매체가 무엇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다.

글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This is clear in the analog environment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is inextricably fixed to the physical medium." 이라는 문장에서는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보 내용이 물리적 '매체(medium)'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medium is not part of the -----." 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와 다르다고 말한다. "A bit stream looks the same to a computer regardless of the media it is read from." 이라는 문장에서는 디지털 정보(비트 스트림)는 어떤 매체에 있든 컴퓨터에게 동일하게 인식된다고 제시되며, 이로 인해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of diminishing importance." 라고 하여 원본 매체 자체의 보존 중요성은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결정적으로, "It is not the media itself but the information on the media that needs to be preserved." 라는 마지막 문장에서는 보존해야 할 것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매체에 담긴 '정보(information)'라고 명확히 강조한다. 여기서 '정보'는 곧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메시지)가 특정 물리적 매체로부터 자유로우며, 따라서 매체는 메시지의 전달 수단일 뿐 메시지 그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매체는 변하거나 사라져도 메시지(정보)는 다른 매체를 통해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즉 '메시지'의 본질적인 일부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선지에서 찾으려면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③ '메시지'(message)이다.

[오답 분석]

① 플랫폼 (platform): 매체가 플랫폼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글의 핵심 논점인 '정보/메시지'와 '매체'의 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적절하지 않다.

② 저장소 (storage): 디지털 환경에서 물리적 매체는 정보의 '일시적'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정보 자체가 특정 매체에 고정되지 않고 쉽게 이전 가능하므로, 매체가 '저장소'라는 개념의 '본질적'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글의 맥락에서 메시지(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 핵심을 짚지는 못한다. 글은 정보(메시지) 보존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매체는 부차적이라고 본다. 적절하지 않다.

④ 도전 과제 (challenge): 매체가 도전 과제의 일부가 아니라는 진술은 본문의 논리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⑤ 변형 (transformation): 매체가 변형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도 디지털 보존에서 매체와 정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

[어휘]

preservation: 보존

medium: 매체, 수단 (복수형: media)

inextricably: 불가분하게, 떼어 수 없게

content: 내용(물)

digital: 디지털의

analog: 아날로그의

bit stream: 비트 스트림 (연속된 비트 정보)

carrier: (정보 등의) 운반체

diminishing: 줄어드는, 감소하는

delicate: 섬세한, 다루기 힘든

migrate: 이전하다, 옮기다

ongoing: 진행 중인

establish: 확립하다

address: 다루다, 고심하다

physical: 물리적인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bit-perfect copy: 비트 단위로 완벽한 복사본

device: 장치

relative to: ~에 비해

information: 정보

Page.19_요지찾기

[정답] ④

[해석]

고대 수렵-채집인 무리와 우리의 친밀한 언어 공동체 모두에서, 언어의 확산은 가치를 형성했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야 했고, 그것은 대략적인 평등주의를 통해서였다.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평등했고 따라서 그들이 평등해야 한다고,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여겨졌다. 이 규범에 의해, 고대 부족의 우두머리들은 통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현대의 사무실 관리자들은 누구도 침묵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언어와 경청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재산이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특히 상품과 식량이 공유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개념을 증진시켰다. 이것은 아마도 현대의 가족, 친구, 직장 관계에서보다 수렵-채집인들 사이에서 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나눔과 상호 부조가 옳고 적절하다고 믿는다. 기억하라,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히 가져와야 한다.

[해설]

이 글은 고대 수렵-채집인 사회와 현대의 친밀한 언어 공동체 모두에서 의사소통, 특히 언어 사용의 평등성이 공유와 상호 부조라는 평등주의적 가치 및 규범 형성에 기여했음을 설명하는 글이다.

글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첫 문장에서 "the diffusion of speech shaped values(언어의 확산이 가치를 형성했다)"라고 언급된다. 이어서 "The fact that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and it was via a rough egalitarianism." 이라는 문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야 했으며, 이것이 '대략적인 평등주의(a rough egalitarianism)'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제시된다. 또한, "In terms of communications, people were equal and therefore it was believed they should be equal, or at least relatively so." 라는 문장에서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평등했고, 따라서 평등해야 한다고 여겨졌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Moreover, equal access to speech and hearing promoted the notion that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that goods and food in particular should be shared, and that everyone had a duty to take care of everyone else." 라는 문장에서는 언어와 경청에 대한 '동등한 접근(equal access)'이 재산 공유, 물품과 식량 공유, 그리고 상호 돌봄의 의무라는 개념을 '증진시켰다(promoted)'고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이러한 문장들은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단순한 의사 전달의 차원을 넘어, 공유, 공조, 상호 책임과 같은 공동체의 핵심적인 평등주의적 가치와 규범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의 요지는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공유와 공조라는 가치에 기반한 평등주의 사회 체제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를 선지에서 찾으면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④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와 공조 가치 기반을 형성했다.'이다.

[오답 분석]

① 수렵인과 현대인은 언어에 대한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글은 수렵-채집인 사회와 현대의 친밀한 공동체를 비교하지만, 언어 자체에 대한 '유사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 핵심 요지는 아니다. 오히려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가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적절하지 않다.

②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해왔다.: 자원 공유가 언급되지만, 언어가 '효율적 분배'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주된 내용은 아니다.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공유의 '개념'을 증진시켰다는 데 초점이 있다. 적절하지 않다.

③ 현대 사회는 고대 수렵 사회보다 평등한 체계에 의해 운영된다.: 글은 두 사회 모두에서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평등주의적 가치를 형성한다고 말하며, 어느 사회가 더 평등한 체계인지 비교하거나 단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This was probably more true among hunter-gatherers..."라고 하여 수렵-채집인 사회에서 더 그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적절하지 않다.

⑤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건설했다'는 표현은 다소 강하며, 글은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그러한 가치 기반을 '형성했다(shaped)' 또는 '증진시켰다(promoted)'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둔다. ④가 '가치 기반을 형성했다'고 하여 과정을 더 정확히 표현한다. 적절하지 않다.

[어휘]

egalitarianism: 평등주의

diffusion: 확산, 보급

accommodate: 수용하다, 조절하다

ethically: 윤리적으로

intimate: 친밀한

speech community: 언어 공동체

shape value: 가치를 형성하다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communication: 의사소통

equal: 평등한

relatively: 상대적으로

code: 규범, 규칙

Big Men: (부족의) 우두머리, 유력자

controllingly: 통제적으로

silence: 침묵시키다

promote: 증진시키다, 촉진하다

notion: 개념, 생각

held in common: 공동으로 소유된

mutual aid: 상호 부조, 서로 돕기

proper: 적절한, 올바른